

다양한 콘텐츠 · 새로운 트렌드 도입

10월 군산야행(夜行) 성료... 과거 · 현재 넘나드는 재미 · 감동 선사

지난 여름, 특색 있는 군산만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해 큰 반응을 얻었던 '군산야행(夜行)'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지난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군산야행(夜行)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야간형 문화행사로서, 근대문화유산과 어우러진 54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군산의 진면모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한정된 예산으로 치러진 2회차 행사였던 만큼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있어 기존과 달리 많은 제약과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의 기반 확충과 연속 지속되는 행사 개최를 통한 원도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도와 고민을 거쳐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근대조형물과 각종 전시물은 최대한 기존의 제작품을



'군산야행(夜行)'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가을밤, 근대문화유산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재활용하고 의례적인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생략하여 홍보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예술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와 군산대학교,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야행의 테마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내실화에 집중했다.

또한 행사를 알리는 시립예단의 플래시몹 특별공연과 함께 ▲전국 버스커즈인들의 꿈의 향연 2017 버

스커즈 in 군산 전국대회 ▲쌀수탈 테마연극 이리랑 노래 ▲풍곡사 산사음악회 ▲다양한 무용, 민요, 판소리 공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문화제 3D증강현실 체험, 문화유산 매직큐브 만들기, 군산역사 퀴즈왕 한자전등 갖 만들기, 황실 고전머리(가제) 체험, 먹방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등 역사를 배우며 즐길 수 있는 18여 가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새로운 콘텐츠

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의 시도가 눈에 띈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야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내년의 야행을 준비하고 반영하고자 추진하다보니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며 "야행을 통한 긍정적인 평가는 야행을 시작한 이후 행사구간에 비거나 달렸던 건물들이 점차 삼점들로 리모델링되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보장가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한다.

하지만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게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있을 경우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 시 기준완화에 대한 전달 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도 10월 이전 수급신청 탈락자 중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며,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민간 후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이전망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업체 생산품 적극 활용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연초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제정 후, 각종 공사 발주 및 물품 구입 시 지역 생산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시는 작년 연초부터 10월말 기준 물품 계약 전체 건수 대비 관내 업체 계약건수 비율이 41%에서 올해 58%로 상승해 지역생산품 활용 노력에 대한 눈에 띄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물품의 목록을 새로 파악하여 각 부서에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으며, 10월에는 190여개의 관내 생산제품 목록을 배포하여 지역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서에서 발주하는 물품에 지역업체 물품을 반영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공사, 용역 및 물품 입찰 시에도 지역 경쟁 입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익산업체의 보호 및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가 지역경제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생산물품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베트남 사업, 새로운 단계 도약

호치민 대학과 합작학과 운영 · 한국학 연구원 설치 문화교류 마당 개최

아시아 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베트남 교류 사업에 새로운 마당을 열었다.

지난 31일 원광대에 따르면 이미 국내 최대 수준인 1000여 명의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해 학교발전과 함께 지역경제 부흥까지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원광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김도중 총장 일행이 베트남 교류 사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호치민시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을 통해 원광대는 호치민 소재 대학들과 합작학과 운영, 한국학 연구원 설치, 호치민 원광대 동문회 발족, 원불교 호치민 교당 봉불식 등 단순한 교육 분야 교류를 넘어선

문화교류의 마당을 개척했다.

28일 호치민 공과대학 및 인문사회 대학을 방문한 김도중 총장은 공동 학위과정 및 합작학과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호치민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및 화학공학과와 원광대 식품공학과 및 탄소융합공학과와의 만남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또한 27일 컨터대학과 이루어진 남북농업연구소 설치 협의는 원광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육종사업의 발전 단계로서 이는 원광대에서 운영 중인 중국 연변 북방농업연구소와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농업연구소와 더불어 '아시아 육종 트라이앵글'을 온전히 구축하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호치민 공과대학과 컨터대학에 설치하는 합작 식품공학과와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향후 상호 연계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사업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한국어 교육기관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된 이 연구원은 베트남에서는 이례적으로 베트남 측 대학 총장이 연구원장을 맡아 시선을 끌었으며, 앞으로 한국어교육과 함께 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교류의 폭이 되는 기관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섬유산업 발전방향 세미나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 31일 전주 라투 체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비전'을 위한 전북섬유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박창규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섬유패션 산업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할 것이며, 섬유패션 유통 및 서비스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주)휴먼네스트 손용재 대표가 강의할 예정이다.

융합섬유연구원은 섬유업체의 해외이전, 투자부진 등으로 점차 사멸화되는 전북 섬유패션산업의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개선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 등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들여보고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대-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위한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0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로 및 진학교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우수인재 배출에 적합한 전문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취업부장과 군산대학교의 학생·취업지원처장, 취·창업지원과장, 대학정보지원센터 팀장 및 양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 결과 양교는 ▲학술 정보, 인력 등의 상호교류 ▲장비, 시설, 공간 등의 공동이용 ▲각종 정부지원 교육,

연구사업의 공동참여 및 지원협력 ▲기업정보의 수집 및 관리, 활용 등의 상호교류 ▲진로 및 취업정보의 공동이용 및 상호교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군산대 최상훈 학생·취업지원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만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성섭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은 "협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회의 등을 통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용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